

서울YMCA 역사 잇기 1-고하 송진우를 만나다 (상)

(청년 통권 58권 10호 20-23면, 2022년 10월 5일 서울기독교청년회)

- 대담: 송상현 명예회장(유니세프한국위원회, 송진우 선생 손자)
- 김명구 소장 (월남시민문화연구소)
- 대담 일시: 2022년 8월 31일 오후 3시
- 대담 장소: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주: 이 대담록은 발췌 요약한 내용입니다.)

대담의 풀영상은 유튜브 채널 “종로아카데미TV”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명구 소장(이하, 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YMCA가 ‘역사 잇기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인물로 고하 송진우 선생님을 선택했습니다. 송진우 선생님을 선택한 이유는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3·1운동을 주도하셨던 분이기 때문입니다. 한민당 초대 총무를 하셨을 때 경제민주주의를 외치셨는데 특별히 경제민주주의는 월남 이상재 선생으로부터 비롯되었고요. 그리고 또 고하 송진우 선생에 의해서 YMCA에서 배웠던 사람들이 기독교와 천도교를 있는 중요한 역할도 하셨습니다. 고하 송진우 선생은 1908년에 YMCA학관에서 일본으로 유학하시기 전에 영어 공부를 하였고요. 일본의 유학생회 친목회 총무를 하셨는데 그때도 이분들은 동경에 있었던 한국YMCA에서 활동을 하셨습니다. 동경에 있었던 한국 YMCA 건물이 동경대진재로 인하여 모두 불타고 파괴되었을 때 다시 재건축을 위하여 고하 송진우 선생님께서 굉장히 애를 쓰셔서 건립기금을 모아 주시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 역사 잇기에서 고하 송진우 선생을 첫 번째 인물로 선택했습니다. 손자 되시는 송상현 선생님은 서울대 법대 교수를 오래 하였고요. 국제형사재판소 재판관과 재판소장을 십여 년 동안 하셨습니다. 그리고 현재 한국 유니세프의 명예회장을 맡고 계십니다.

송상현 명예회장(이하 송): 오늘 평소에 참 가깝게 모시는 김명구 박사님께서 이런 좋은 기회를 마련해 주셔서 저로서는 참 감동입니다. 과거를 정확하게 알아야 우리가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할 수 있고 또 추진해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YMCA에서 주도적으로 활동하시는 김명구 선생이 사학자로서 보시는 눈이 있어 지금 이러한 역사 잇기 운동을 통해서 역사가 바로 세워지기를 희망하는 운동을 시작하신 데 대해서 저는 만강의 경의를 표하고 또 제가 힘은 없지만 혹시라도 좀 도움 일이 있으면 힘껏 돕겠습니다.

김: 세간에는 그동안 YMCA와 고하간의 관계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자세하게 알려지지 않았는데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자료를 찾다 보니까 고하와 YMCA 간에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었습니다.

1921년에 YMCA의 잡지인 “청년”지가 만들어졌을 때 고하 선생께서 “남녀 간의 교제는 어떻게 해야 하나” 이런 제목의 글을 쓰셨거든요. 첫 번째 필자로 이렇게 선정되었다는 것은 고하 선생이 갖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의 영향력도 있지만 고하 선생님과 YMCA 간의 어떤 밀접한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해서 그것들을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주제가 고하 송진우 선생님과 YMCA인데 조부이신 고하 송진우 선생님이 애국자로서 한국

에 헌신하셨던 것, 생명까지 바치신 것에 대해서 많이 알리려고 노력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손자로서 고하 송진우 선생님을 잠깐 소개해 주셨으면 합니다.

송: 옛날에 삼일운동이 일어날 그 무렵 나라를 빼앗긴 조선 2천만 민중이 조금이라도 의식이 있었으면 못 배웠거나 배웠거나 간에 주권을 뺏기고 노예 같이 사는 걸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전 국민의 걱정과 희생과 노력과 봉사가 합쳐서 광복과 건국을 가져왔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노력을 하는 분들이 해외에도 많이 계셨고, 그룹도 많고 인물도 많았지요. 반면에 고하선생은 국내를 튼튼하게 지키면서 국내에서 그 혹독한 감시와 탄압 속에서도 변절하거나 타협하지 않으면서 자유민주주의의 신념을 가지고 국내 독립운동의 중심인물로서 일생을 바쳤다. 그렇게 저는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 얼마 전에 고하 선생 일대기 “독립을 향한 집념”을 책으로 펴내셨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여러 증언들을 모으셨고, 평전도 거기에 있습니다. 해외에서 독립운동을 하더라도 국내의 협동과 지원과 호응이 없으면 큰 효과를 내기 어렵고 정통성을 유지하기 어려우므로 이 책을 출간하게 된 취지나 이 책을 통해서 고하 선생님에 대해서 혹시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송: 50년도 더 지난 옛날에 그 당시에 살아 계셨던 그 후학이나 동지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해서 고하선생의 전기가 출간된 일이 있습니다. 국내에서 중심인물이 되어 독립운동을 하다가 보니까 너무 감시와 탄압이 심해서 모든 자료가 숨겨지거나 일실되고 또 6·25전쟁 때 다 파괴되고 불타버려서 여간해서 이분의 자료를 그 후에 입수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 후에 20년 이상 일본으로 망명했다가 돌아와 광복회장을 하신 이강훈(李康勳) 옹의 증언이라든지 또는 106세로 최근에 돌아가신 김병기(金秉騏) 화백 등의 증언은 새로 추가한 것이지요. 김병기 화백은 평양에서 잘 사시던 김찬영 화백의 아드님으로서 그분이 조만식 선생의 밀명을 받아가지고 산을 걸어서 넘고 기차를 이용하기도 하고 또 해엄쳐서 바다와 강을 건너고 해서 어렵게 경성에 오셔서 고당 조만식 선생의 밀명을 저희 할아버지한테 전달했던 회고담은 아주 대표적이지요. 그 외에도 조금씩 이런 저런 얘기들이 나와서 저희들이 미처 파악하지 못하고 숨겨졌던 국내 자료들이 조금씩 발굴이 됐기 때문에 이것들을 추가로 넣어 보완하는 의미가 있겠다 하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탄압과 감시 속에서 자료 입수의 어려움을 이제 극복해 가지고 조금 보완하는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는 저의 개인 생각이라고 보셔도 괜찮습니다만 우리나라 독립을 위해서 2천만 조선 민중이 다 애를 썼지만 이제 주목할 만한 그룹이나 인물로 보면 상해임시정부그룹도 엄청나게 애를 많이 쓰셨고, 또 만주별판을 누비면서 무장 독립운동을 하면서 왜적을 척살하든 분들, 또 독립을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써 사회주의 공산주의자가 되긴 했지만 그래도 러시아의 하바로프스크, 사할린 이런 데서 독립운동을 하시던 그룹도 있었고, 또 미국이나 유럽에서 일본의 한국 병탄은 국제법상 불법이라는 걸 꾸준히 알리면서 우리 교포들의 정신을 계속 깨우쳐 있게 만드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활동을 하신 미주의 독립운동가들의 집단이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것은 자료도 많고 또 정부나 여러 요로에서 이분들의 유적을 높이 평가하고 표창을 해가지고 이 분들이 어떤 일을 하셔서 이렇게 빛나는 결과를 가져왔는지는 다 압니다.

그런데 국내에서 폭압과 감시를 이겨내고 국내를 지키면서 국내의 구심점이 되어 가지고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면서 절대 지조를 굽히지 않고 독립운동을 해온 국내 그룹에 대한 것은 어찌된 일인지 전혀 역사에서 배제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저희가 학교 다닐 때는 다 국사교과서에 나오던 인물과 독립활동이 지금은 감쪽같이 다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린 한 네 가지 그룹은 해외에서 독립운동을 확 활발하게 하시던 분들이에요. 근데 그분들은 국내에서 독립운동하는 분들이 안팎으로 호응하고 지원해주지 않았으면 전혀 그런 해외독립운동의 효과는 반감했을 것이고, 전세계적으로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웠겠지요.

그다음에 저희 할아버지가 하신 일을 보면 외국에서 잠입한 밀사나 연락책들을 만나 비밀리에 독립운동 자금을 몇 만원 씩 건여줘서 몰래 보내고, 해외 지역에 모여 살고 있는 교포들을 위하여 그 교포사회에서 지역 신문을 발간하고자 할 때 그 나라 문자를 모르는 교포들이 더 많기 때문에 한글 활자가 있어야 출판할 수 있지요. 그런데 요즘은 그런 게 문제가 안 되지만 옛날에는 금속활자를 다 뽑아서 연판을 만들어가지고 인쇄하기 때문에 여기서 활자를 가져가야 돼요. 우리 할아버지는 신문사 사장이니깐 활자는 자기가 얼마든지 확보할 수 있으므로 이런 한글 활자를 전부 다 구해가지고 그들한테 몰래 보내줘서 각 지역, 예컨대 뉴욕 이라든지 카자흐스탄이라든지 하바롭스크라든지 이런 데서 한인 교포를 위해서 지역신문을 한글로 내는데 크게 공헌을 해준 것이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뭐 말이 좀 과장이 됩니다만 독립운동 하는 사람이 친일파 순사 뺨 한대를 때리는 가벼운 경우라도 국내에서는 그걸 받아서 대단한 독립운동을 한 것처럼 크게 홍보를 해주고, 동아일보를 통해서 이렇게 민족정신이 살아 있고 모두 우리 국민들이 어디에 살던지 간에 이렇게들 나라를 위해서 애쓴다고 하는 걸 크게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금공급, 활자공급, 그다음에 홍보 이 세 가지 면에서 국내에서 모든 어려움을 참고 해외독립운동을 위한 호응과 지원을 다 해냈는데 그 부분은 세월이 갈수록 아무도 전혀 언급을 하거나 주목을 하는 분이 없고, 오히려 해방이 되어 외국에서 활동하신 지도자들이 모두 국내에 들어와서는 ‘국내 있는 놈들이 친일 안 했으면 어떻게 목숨을 부지했겠어’ 뭐 이런 식으로 일방적 추단을 했지요. 이런 것들을 좀 바로 잡을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해외에서 너 댁 그룹이 열심히 독립운동 하셨고 국내에서 뒷받침해주신 그룹이 있었는데 제 생각에는 근현대사 중에서 특히 항일독립운동사가 조금 편파적으로 기울어져 있지 않느냐. 모두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애쓰신 이런 그룹이나 지도자들을 공평하게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서 그분들의 공은 공대로 다 인정을 해 드리고 그랬으면 오히려 역사가 바로 잡혔을 것이다. 그래서 고하 일대기를 내는 또 하나의 취지는 ‘역사 바로 세우기’라고 그럴까 역사바로잡기의 단초를 제공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김: 지금 말씀이 틀린 말씀이 아닌 게 사실은 한국 역사에서, 특히 독립운동사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삼일운동이거든요. 삼일운동 때 송진우 선생님의 역할이 기독교 이승훈 등을 만나서 기독교와 천도교를 묶는 역할,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였고, 그것들이 역사의 실제 사실인데 역사에서 그런 것들이 깡그리 배제되고 있어요.

송: 삼일운동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상해임정이 탄생을 했겠습니까! 그게 자극제가 되니까 금방 상해뿐이겠습니까. 만주고 하얼빈이고 모두 우리가 좀 주권적인 독립적인 정부를 세워서 일본 제국주의와 싸움을 하더라도 해야 되겠구나 이런 자극을 주는 결과를 가져왔는데요. 사

실 삼일운동도 보시면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삼일운동을 주도하신 분들은 중앙학교 숙직실에서 머리를 맞댄 고하 선생 외에 현상윤 선생, 그 당시에는 우리 할아버지가 교장이고 현상윤이 교감이에요. 이 분들이 주축이 되고 현상윤 선생의 은사로서 최린을 끌어들이고 또 고향이 같은 평안도 정주 출신 이승훈 선생, 김도태 선생 이런 분들을 끌어들이고, 또 모두들 -일본에서 같이 유학했던 최남선 선생님을 끌어들이기 때문에 그 당시 동시대의 동경에서 같이 다 알던 친구들, 동지들이에요.

거기다가 송암(함태영) 선생 같은 기독교 목사님 또는 천도교 지도자인 핵심 인물이 몇 분이 계셔가지고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 역사상 분열을 통합으로 이끌었거든요. 천도교와 기독교가 통합된다는 것은 우리나라 역사에 엄청난 일이거든요. 거기다가 우연적이지만 불교의 한용운, 백용성 두 분이 들어오시지요. 그런 결정적 활약을 외국에 있으면서 누가 했겠습니까. 국내에서 애쓰고 이렇게들 하신 주동적 활동에 대해서 전혀 인정을 안하고 있지요. 그리고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33인 외에 실질적 주동자인 고하 선생, 송암 선생 또 기당(현상윤) 선생, 육당 최남선 선생 이런 분들이 다 서명을 안 했습니다. 그 이유는 한 번만 이렇게 만세운동을 일으켜서는 독립이 안되고 서명하면 어떤 희생을 당할지도 모르니까 제2진으로 계속적인 독립운동을 지휘할 지도자가 남아있어야 되고, 제3진, 4진으로 또 독립운동을 계속해서 끌고 나갈 지도자가 남아있어야 하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으로서 뒤에 남아 있어야 된다고 했지요. 일부 서명한 분들이 잡혀가서 전모를 자백하는 바람에 며칠 사이에 다 끌려갔어요. 그렇지만 그 사이에도 철시운동을 하고, 납세거부 운동을 하는 등 모든 저항운동을 전부 지시를 하셨거든요.

이제 그런 상세한 것은 전혀 알려져 있지 않지만 그런 삼일운동이라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조선민족이 그래도 이 세계사에서 아! 그 사람들 그냥 누르면 놀리는 사람이 아니고 자기네 의식과 자주성이 있구나 하는 것을 세계만방에 인식을 시켰고 그리고 우리나라에 지금 오늘날의 역사를 볼 때도 그 후에 임정이 생기고, 전세계적으로 그 임팩트가 얼마나 컸습니까. 아시다시피 터키, 중국의 5·4운동까지도 다 삼일운동에 영향을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33인의 서명자와 서명을 안 했다고 그래서 48인이니 해서 이걸 다 또 차별하고 구별해가지고 이 사람들은 훈장을 줄 때도 한 등급 높은 것을 주고 뒤에 2진, 3진으로 계속 삼일운동을 하기 위해서 뒤에 남은 분들은 전혀 훈격에 차별을 하고 있어요. 그 공로를 인정받기 위해서 운동을 한 분들은 아니지만 내 나라 내 역사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너무 소홀하게 돼 있어서 참 이런 거는 조금 바로잡을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김: 그런 생각을 역사를 하는 저 같은 사람이 해야 될 사명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요. 선생님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고하 송진우 선생님의 일대기 속에서 독립을 향한 집념의 의도도 알겠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역사 바로세우기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어떤 의무감, 사명감도 갖게 합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고하가 1908년 벽초 홍명희 선생님의 권유로 일본 유학을 가시잖아요. 일본 세이소쿠 영어학교를 갔는데 제가 보니까 그때 가시기 전에 고하선생이 잠깐 YMCA학관에서 영어를 배우셨어요. 또 하나는 유학을 가셔서 1911년에 와세다 대학에서 신익희, 장덕수 등과 사귀는데 고하선생은 그때 동경에 있는 조선 유학생의 친목연합, 친목회 총무도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의 활동 근거지가 동경에 있었던 조선 YMCA회관이었고, 그 당시에 총무가 김정식 총무였거든요. 그리고 장덕수는 거기 간사도 하고 있었고 그래서 이렇게 밀접한 관계가 있었네요. 그런데 그것들이 잘 드러나지 않아서 제가 찾아 보니까 자료에 나와서 이러한 부분이 YMCA가 소중하게 여기고 중요한 역할을 했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하나는 선생님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상재 선생님과 관계 그러니까 그런 관계라서 그랬는지 “월남 이상재 연구”라고 하는 자료집을 만드셨거든요. 장인 되시는 김상협 국무총리께서 주도하셨는데요.

송: 참 많이 도와드렸습니다. 자료집 외에 저희 할아버지 동상이 먼저 썼기 때문에 동상 세우는 노하우나 기술적 세부사항, 그러니까 동을 주조해서 거기 불순물을 태워서 버리고 순동으로 만들어서 해야 되는데 불에 태워서 불순물을 없애면 동의 양이 많이 줍니다. 그러면 조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손해를 보거든요. 그래서 다소 야료를 다 부립니다. 제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관리하는 일에도 좀 참견했지요.

편집/정리 - 김정희 박사(월남시민문학연구소 연구위원), 홍보팀

서울YMCA 역사 잇기 2-고하 송진우를 만나다 (하)

(청년 통권 58권 11호 20-23면, 2022년 11월 5일 서울기독교청년회)

- 대담: 송상현 명예회장(유니세프한국위원회, 송진우 선생 손자)
- 김명구 소장 (월남시민문화연구소)
- 대담 일시: 2022년 8월 31일 오후 3시
- 대담 장소: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주: 이 대담록은 발췌 요약한 내용입니다.

대담의 풀영상은 유튜브 채널 “종로아카데미TV”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 송진우 선생님과 서울YMCA가 그런 부분에서 고하 송진우 선생님 집안에서 알려진 이야기나 혹시 그런 에피소드 같은 게 있으시면 좀 말씀 좀 해주시죠.

송: 이분이 3·1운동을 일으킨 다음에 금방 붙들려 들어갔단 말이에요. 일 년 반 이상을 옥고를 치르고 나왔으니까 1921년이 돼요. 그러고서 동아일보 사장이 됩니다. 사장이 된 다음에 제일 먼저 이분이 사회적인 활동으로 민립대학설립운동을 하시는데 그때 이상재 선생님을 먼저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상재 선생님을 모시고 민립대학설립운동을 하셨어요. 월남 선생을 굉장히 인품으로 사숙하게 되고 옆에서 자꾸 뵈니까 이분은 참 존경해서 따를 만한 분이다. 그렇게 생각이 됐었죠.

이 일과 관련해서 월남 선생과 구체적인 인연이 맺어진 다음에 1927년에 월남 선생이 돌아가십니다. 78세에 생가에서 돌아가셨는데 사회장으로 모시느라고 저희 할아버지가 주동적인 역할을 많이 하셨어요. 월남 선생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YMCA의 관계를 지속해야 되는가 이

런 생각이 들어서 구자옥 총무를 자주 접촉하셨지요. 구자옥 총무는 나중에 대한민국 경기도지사 됐어요.

내 장인이 나중에 월남 이상재 기념사업회 위원장을 맡아달라는 요청을 받고 그분의 동상건립과 학술서적을 펴내는 일을 하셨어요. 그때 저도 물밑에서 장인을 많이 도와드려서 월남선생을 위한 사업의 진전을 좀 압니다.

또 하나는 저 동경 YMCA회관이 불이 났어요. 그때 총무를 하던 사람이 최승만이라는 분이었는데 이분이 인하대학을 세운 분이거든요. 인하대학이 인천하고 하와이라는 두 지명의 조합입니다. 근데 일본 건물이 싹 불나서 타버린 다음에 최승만 선생이 서울에 오셔서 우리 할아버지한테 먼저 오셨어요. ‘이거 큰일 났습니다. 고하 선생님도 동경 유학 시절에 드나드시고 잘 알고 하시던 건물이 불탔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최승만 씨를 데리고 다 돈 될 만한 사람한테 인사를 시켜가지고 오히려 그 건물을 다 짓고도 남은 만큼 돈을 더 많이 모았다고 해요.

최승만 씨가 서울로 와서 할아버지한테 옛날 인연을 얘기하면서 얘기를 하니까 그럼 이분이 앞장서서 그 당시 돈 있는 사람을 쫓 소개를 해가지고 출연도 좀 하게 해서 동경 건물을 새로 지었는데 도움을 크게 주었다고 해요.

김: 고하 송진우 선생이 1932년에 삼천리에 글을 쓰셨죠. 제가 얼마 전에 어떤 기고하는 글에 그것을 옮기면서 고하 선생님께서 주장하시기를 그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도 자유를 누려야 한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자유를 누리려면 경제권을 가져야 한다.

그래서 생존권과 자유권, 경제권이 같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그런 철학을 갖고 계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것이 나중에 한민당 초대 수석총무를 하셨을 때 한민당의 세 번째 정강을 말씀하시면서 경제민주주의라고 하는 표현을 처음 쓰시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이 경제민주주의라고 하는 용어가 YMCA에서 1930년대에 나온 용어고 그리고 보니까 이게 굉장히 서로 사상적으로 아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서 송상현 선생님이 보시기에 고하 송진우 선생이 갖고 있었던 정치철학은 어떤 거라고 요약할 수 있을까요?

송: 월남 선생이 1927년에 돌아가시고 삼천리에 “자유권과 생존권”이라는 글을 쓰셨어요. 그 당시 표현이니까 지금 볼 때는 좀 우습고 투박하지만 중요한 이념, 소위 경제민주주의 사상이 거기에 좀 담겨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자유권과 생존권은 서로 상충되는 개념이 아니다. 서로 오히려 보완이 가능하다. 그런 점을 강조하시고 또 정치적 자유권, 경제적 생존권이 서로 각각 나눠서 따로따로 생각할 그런 것이 아니다. 그래서 짧은 글인데도 굉장히 강조하셨는데 이것도 고하가 평소에 굉장히 사숙하고 존경하던 월남 이상재 선생으로부터 비롯된 사상적 배경이 있는 것이지요.

이것이 그 당시에 벌써 지금부터 90년 전에 쓰신 글입니다. 오늘날에 보면 인권,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인권인데, 인권 개념의 양대 축이 자유권과 사회권인데 고하 선생은 자유권과 생존권 이렇게 쓰셨지만은 오늘날의 인권 개념 차원에서 보면 자유권과 사회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인권 개념의 핵심적인 내용이지요.

그래서 이분이 물론 영·미식 자유민주주의를 채택해서 자유권을 보장해야 되지만은 우리나라가 후진국이고 농업국이고 여러 가지 부의 계층도 많고,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는 조금 좀 경제 민주주의, 그 당시 혹은 그전에 유럽에서는 거의 사회주의 사상에 가까운 그런 생각을 아마 많이 연구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토지개혁이라든지 기간산업의 국유화라든지 이런

면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이고 당신 나름대로 어떤 논리가 있는 주장을 굉장히 하셨습니다.

이념적으로 극도로 혼란한 해방정국에서 한반도를 공산당한테 넘겨줄 수가 없다는 그런 신념 하에서 공산당과 대항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한국민주당이라는 걸 창당을 했는데, 그때는 뭐 정당이 한 이백여 개 있는 중에 공산당이 으뜸이었죠. 박헌영이 중심이고, 우익은 당이 몇 개 있기는 있었는데 다 나뉘어져 있어 가지고 힘을 못 쓰고 그랬죠. 이제 이것 다 통합해서 한국민주당을 창당하면서 그 강령에다가 이 어른이 주장을 해서 영·미식 자유민주주의에다가 경제민주주의 이것을 강령에다가 아주 핵심적인 사상으로 반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주장을 하고 보니까 이게 당시로는 선진적이어서 너무 영뚱하고 너무 의외인 거예요.

그 당시에 일반적으로 이해하기는 아주 보수적이고, 지주 중심이고, 지배층 중심의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한국민주당이라고 하는 걸 만들었는데 경제민주주의를 주장하고 토지개혁이라든가 무슨 기간산업의 국유화라든가 이런 아주 굉장히 혁신적인 주장을 하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랐지요. 유럽식 사회주의를 외치던 인물들, 그러니까 공산당 박헌영과는 자리를 같이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유럽식 사회주의를 외치던 그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박헌영에 반대하는 장안파 공산당이라든지 온건파 공산계열까지 모두 다 한국민주당의 당원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공산당을 막아낼 수 있는 그런 정치조직을 하나 만드신 거죠. 12월 30일 암살 당하셨거든요.

이분이 돌아가신 다음 이어받은 리더십들은 고하 선생하고 그런 사상이나 이런 생각이 너무 달라요. 경제민주주의는 벌써 빠져요. 이거에 호응해서 들어왔던 일정시대 북풍회, 화요회 계통의 사회주의 세력들이 전부 다 탈당해서 떠나버립니다.

송진우나 장덕수나 김성수나 다 똑같은 사람들이지 뭐가 다르냐 그렇게 보지만은 저희가 볼 때는 천양지차가 있어요. 저희 할아버지는 정치적으로 자유민주주의를 채택을 하고 경제적으로 경제민주주의를 채택한 사람인데, 그 다음 리더십을 이어받은 분들은 경제민주주의 쪽은 안 된다고 제외하였죠. 나중에 임정 측에서 이시영 선생 신익희 선생 등을 영입을 해가지고 한국민주당이 민주국민당으로 바뀌죠.

김: 서울 YMCA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한다. 효과에서 공정과 공평, 그리고 헌신 이런 것들이 있는데 혹시 서울 YMCA를 위해서 조언하실 게 있을까요

송: YMCA의 설립 목표에 비추어 보면 1903년에 언더우드 선생이나 이상재 선생이 여기서 시작을 할 때 항일독립운동하라고 누가 그랬나요. 그때는 조선이 일제의 속국이 된 때도 아니고 그랬는데 결국 YMCA에서 배운 정신을 터득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 지도자가 돼가지고 2·8독립선언을 그 환경에서 일으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정관이나 무슨 목표 등 어디에 그런 게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새로운 요구, 새로운 지향점이 있으면 그걸 놓치지 말고 그 시대에 맞는 그런 활동을 해야 되겠지요. 시대가 바뀌면서 시대적 소명이 새롭게 등장하면 그걸 놓치지 마시고 감당해낼 수 있는 어떤 사회적 관심과 책임을 강조하고 역량을 좀 길러서 새로운 역할을 찾고 새로운 일을 하고 그래야 되겠지요.

그것이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데 시대와 사회가 변함에 따라서 이제 국가사회에 필요하거나 시민이 원하는 방향, 요새 그런 방향이 뭐냐 그러면 예컨대 기후변화대응 그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또 환경개선운동, 조금 있으면 대한민국이 없어진다는데 인구절벽을 타파하는 운동에 YMCA가 과연 관여를 할 수 있는지는 잘 모르지만 하여간에 시대가 바뀌면서 새로운 요청이 등장할 때 빨리빨리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붙잡아서 새롭게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김: YMCA에 아주 적절한 말씀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사실은 저 개인적으로는 고하 선생님에 대한 연구를 좀 충실히 준비해서 관계도 더 확실히 하고 뿐만이 아니라 아까 선생님 말씀하셨던 역사바로세우기에 저도 좀 일익을 담당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데 오늘은 이 정도로 인터뷰를 마무리해야할 것 같습니다. 오늘 장시간 감사합니다.

송: 감사합니다

편집/정리 - 김정희 박사(월남시민문화연구소 연구위원), 홍보팀